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 THE HYUNDAE BULKYO |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1월 28일 수요일 (주간) | 제 345 호

금주법구

산에 들어와서 겨우 어리석음을 배우니
입이 있어도 쉽게 여는 것을 꺼린다네.
남의 잘못한 바를 따지지 말고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고치게나.

-석옥 청공선사-



'재가자 동안거' 늘고 있다

20여 사찰·재가선원서 3400여명 결제

29일(음 10월 15)부터 내년 2월 26일(음 1월 15)까지는 동안거 결제기간. 3개월 동안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참선정진하는 이 기간에 스님 못지않는 용맹정진에 나서는 재가불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가자 동안거가 실시되는 사찰은 20여곳. 해인사 원당암이 150여명, 용화사 보살선원이 130여명, 서울 안국선원이 500여 재가자들의 방부를 받는 등 모두 3천400여 재가자들이 결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는 41년간 끊임없이 계속돼 온 1개월 안거 원칙에 따라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동안거를 실시, 1천500여명이 동참하는 결제에 들어간다.

재가자 안거의 효시는 해방후 전강스님이 개설한 인천 용화사 보살선원. 송담스님이 그 뒤를 이어 매년 1백여 보살들이 계절 안거에 동참하고 있다. 72년부터 철마다 70여명의 재가자가 안거를 나는 부산 해운정사는 재가자와 스님을 같은 선원에서 정진시킨 향곡스님의 가풍을 이어받아 전법제자인 진제스님이 직접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78년 혜암스님(조계종 종정)이 해인사에 주석한 뒤 개설한 원당암 재가선원에도 150여 재가자들이 한철을 나고 있다.

90년대 들어 개설한 통도사 부산포교원을 비롯 통도사 취운선원, 서울과 부산의 안국선원, 부산 여여선원, 서울 우곡선원, 봉은사 봉은선원, 도선사 무차선원 등이 짧은 기간동안 재가자 동안거를 내실있게 정착시켜 왔다.

반면 단기 겨울수련회를 실시해 온 사찰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단기겨울수련대회의 중단은 많은 사찰들이 난방시설 등 수련공간 미비, 재정 및 참여자 부족, 관리의 어려움 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경 기자 ☞3면으로 계속

종단협 대표 12월 11일 방북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조선불교도연맹과 실무회담을 위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키로 했다.

이번 방북은 조선불교도연맹이 23일 종단협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온 데 따른 것이다. 실무회담에서는 대북지원물자 공정분배, 내년 서울 한중일대회 북한 참가, 단청재료 지원 등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단협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2차례에 걸쳐 8억6백만원 상당의 대북지원을 결의하고, 종단별 지원분담 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키로 결의했다. ☞관련기사 9면

김원우 기자

인도불교 지원 '손길'

우리는 선우·달라이 방준위 등 앞장

지난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대개종식 관련 기사가 본지에 연이어 상세히 보도되자, 인도불교를 돕자는 국내 불자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는선우와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 등 불교단체에는 본지 보도가 나간 후 '인도불교를 돕는 불사를 하지 않느냐'는 불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랐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몽고, 티베트 불자들을 후원해 온 우리는선우와 티베트망명정부를 지원해 온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를 주축으로 한 인도불교 돕기 불사가 조만간 가시화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티베트불교 돕기에 적극 나선 우리는선우는 이번 대개종식을 개최한 '로드 붓다 클럽'에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매년 1~2만 달러의 보시금을 인도불교단체에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인도불교 돕기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도 주요 불교단체의 행사에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는 등 한-인 불교교류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양국 문화교류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인도에는 '로드 붓다 클럽'과 델리 재가불자협회, 암베드까르 기념위원회, 불교지원기금(TBMSG) 등의 단체들이 사회개혁운동과 사회복지, 포교사업 등을 벌이고 있지만 힌두교도들의 조직적인 탄압과 열악한 재정, 신도 조직 부실 등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석굴암 전실 잘못 복원" 1909년 사진 발견

석굴암 전실의 마지막 팔부신장상이 지금처럼 일렬로 놓인 게 아니라 절곡형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 발견됐다. 사운연구소(소장 이종학)가 공개한 석굴암의 1909년 전실 모습. 1910년에 발간된 최초의 조선미술사연구서인 〈조선미술대관〉에 실려 있다. ☞관련기사 17면

여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상정

민주당-선의취득 배제, 한나라당-공소시효 정지

민주당 이미경의원과 한나라당 고흥길의원이 의원발의형태로 국회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이미경의원은 17일 의원 31명의 동의를 얻어 지정문화재에 한하여 선의취득제도를 배제하고, 동산문화재 점유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지정문화재에 한하여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한나라당 고흥길의원도 의원 41명의 발의를 얻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고의원등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지정 문화재 수리보존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와 문화재 은닉의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결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결의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개정 공포된다. ☞관련기사 17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군불교위원장에 성광 스님

30일 대전서 출범식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20일 군불교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군승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예비역군법사회 회장인 성광 스님(화계사 주지)을 임명했다. ☞위원장 인터뷰 3면

또 부위원장에 공군 군승법사를 전역하고 교육원 교육부장을 역임한 계성 스님(강화 전등사 주지)을 임명했다.

군불교위원회 회장단을 확정한 포교원은 30일 오후 5시 30분 대전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군불교위원회 출범식 및 33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키로 하고, 조직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군불교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며 정책을 의결하는 상임회의와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운영회의로 이루어진다. 운영회의장은 군승단장격인 최고참 선임법사가 맡으며, 운영위원들도 각 군의 선임법사들로 구성된다. 운영회의 산하에는 각종 군 포교 사업을 집행할 행정사무국이 국방부 종교센터 내에 설치된다.

현역 군승들로 구성된 군승총회도 1년에 두 번씩 열어 교육 수련회 개최와 군포교 관련 사업에 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1억1천5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군불교위원회는 신도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방부 원광사 등 원찰지정 신도등록과 신도증 발급을 비롯해 군 법당 지원을 위한 1부대 1사찰 결연맺기 운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송광사의 '대중공의 운영'

총림의 인사, 불사추진 등 일체 사중일이 대중공의에 의해 운영되는 순천 송광사(주지 현봉)가 사찰운영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송광사가 올해들어 적극적인 문화·학술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뜻을 모아 사업으로 구체화 할 수 있었던 민주적 합의체인 조계총림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었기 때문



이다.

결성 2년을 맞은 조계총림운영위는 송광사 삼일암에서 방장 보성스님의 주재로 유나, 회주, 율주, 강주, 주지, 종회의원 2인등 당연직 위원과 방장스님이 위촉한 13인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거 결제 이틀전과 해제 이틀후 연 4회 개최된다. 이번 동안거 결제 이틀전인 27일에도 조계총림운영위원회가 열려 사중의 현안을 논의했다.

조계총림운영위원회가 2년간 가동되면서 송광사의 변화는 컸다.

전 대중이 조석으로 대중공사에 참여하는 승풍진작과 일부스님 제자 위주의 본 말사 주지 임명 등의 폐혜가 사라진 것은 물론, 대중들이 마음을 합하여 총림운영에 참여하면서 문도화합이 이뤄진 것이 우선적으로 돋보이는 성과다.

송광사의 요즘 화두는 '불교문화'라는 말처럼,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문화·학술불사에 치중했던 것도 운영위 스님들의 정재사용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모인 데 따른 것이다.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문화재 보존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불교성보 보수 교습원'이 설립됐는가 하면, 종무행정 전산화 교육,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했다. 또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포교에도 주력키로 결의하여 마을법회를 봉행하고, 경로잔치 운동회 등의 지역행사에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것도 총림운영위 회의에 따른 성과다.

송광사 총무국장 보리스님은 "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기에 사찰 소임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며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함께 논의하기 때문에 개방적인 종무행정이 이뤄지고 대중의 힘이 결집된다"고 밝혔다.

김원우(취재 1부 차장)

장군죽비

◇'불교여성개발원' 기대에 못미치는 활동으로 1돌 맞이. 홍보·대중성·전문성 부족을 탓하기엔 외조도 부족. (3면)

◇안락사 문제, '행복한 죽음'과 '생명 존엄' 사이에서 우왕좌왕.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귀기울일 때. (8면)

◇석굴암 전실의 8부신중 배치 원형 보여주는 사진 자료 발견. 세월의 풍화도 최고 수준의 문화재 앞에서는 허리를 숙인다. (17면)

◇불교환경연대 '어린이 환경수비대' 발족. 환경 문제의 본질은 사람 문제. '못난 어른' 되기 전에 기본 튼튼히. (23면)